

3대 이동통신사가 선보인 5G 콘텐츠 체험기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은 2010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모바일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4년이 넘게 지난 2014년 11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모바일 퍼스트 월드' 콘퍼런스에서 에릭 슈미트 회장은 또 다른 모바일과 관련된 변화를 예측했다. 그는 "5년 뒤에 모바일로만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했다.

글 김지현 기자 jihyunsports@mtn.co.kr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 체험관
'일상로5G길'에서 VR콘텐츠 체험 중인 모습.

슈미트의 예상처럼 모바일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발맞춰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란 큰 두 가지 축을 두고,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체험관을 열어 관객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소개하는 5세대 이동통신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봤다.

VR 헤드셋으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VR 콘텐츠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가장 기대되는 분야다. 체험자는 VR 헤드셋 하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VR 기기는 체험자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끈다. 통신사가 선보인 주요 VR 콘텐츠는 △여행 체험 △공연 보기 △게임 △스타와 데이트 △웨딩 등이다.

체험자가 VR 헤드셋을 낀 뒤 '해저체험' 콘텐츠를 선택하면, 직접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을 탐험하는 것처럼 눈앞에 바닷속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시야를 360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다

만 콘텐츠 감상 시간이 대부분 5분 이내여서 체험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다. 해저체험은 LG유플러스 체험관에서 만날 수 있다.

종류가 다양한 VR 게임은 선택해서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뮬레이션 게임을 비롯해 슈팅 게임, 롤플레이, FPS, 어드벤처 게임 등 장르도 다양하다. 강남역에 위치한 LG유플러스 5세대 이동통신 체험관인 '일상로5G길' 관계자는 "여러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는 슈팅게임이나 롤플레이 게임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약당을 물리치는 롤플레이 게임을 직접 해보니 간단하면서도 박진감 넘쳤다. 방법은 간단하다. VR 헤드셋을 쓴 뒤 기기를 손에 쥐고 흔들면 칼로 베어지고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간다. 스테이지마다 날아가는 까마귀를 맞으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이 슈팅게임은 과거 오락실에서 인기가 많았던 우주 속 전투 게임과 비슷하다. VR헤드셋을 쓰고 적 우주선이 날아오면 기기를 손으로 움직여 방향을 정하고, 버튼을 눌러 적에게 미사일을 쏘는 게임이다. 이제는 VR 헤드셋과 버튼 기기만 있으면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을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셈이다.

눈 앞에 있는 듯 생생한 콘텐츠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스타와 데이트' 콘텐츠는 좋아하는 스타와 직접 데이트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VR헤드셋을 쓰고 콘텐츠를 실행하면 연예인 손나은이 옆에서 사용자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고, 같이 TV를 보기도 한다. 이 콘텐츠는 앞으로 여러 연예인과 상황, 장소별로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질 수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따라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VR웹툰 콘텐츠는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보던 웹툰과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VR 헤드셋을 쓰면 웹툰 속 등장인물이나 상황이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듯하고, 눈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공포 웹툰에서는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 LG유플러스 VR 옥수역이란 공포물 웹툰을 직접 경험해보니, 마치 귀신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영화나 스마트폰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느꼈다.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마치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AR 콘텐츠는 실제 내 옆에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면 가상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6년 7월에 출시한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AR 콘텐츠다.

LG유플러스는 아이돌을 AR 콘텐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스마트폰으로 AR 레스토랑 콘텐츠를 실행하면, 아이돌이 식탁 근처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구현된다.

AR 클럽 콘텐츠를 실행하면 아이돌과 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녹화할 수 있다. 실제로는 아이돌의 춤을 보며 나 혼자 춤을 추지만, 스마트폰 속에서는 아이돌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녹화된다.

다양한 시점으로 즐기는 야구 생중계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더 많고 다양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시청자들은 여러 각도의 영상을 바로바로 전환하며 즐길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를 활용해 내놓은 대표적인 콘텐츠는 야구 중계다.

LG유플러스는 잠실구장에 30대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30여 대의 카메라는 시청자가 다양한 시점에서 중계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보통의 중계는 타자와 투수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공하는데, 이제는 시점을 야수나 주자, 벤치 등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1루수를 중심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를 선택하면 1루수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게다가 폴딩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두 가지 시점으로 생중계를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야구 경기 화면은 2루 베이스 근처에서 포수를 바라보는 시점이다. 이



1



2

- 1 SK텔레콤 체험관에서는 VR 헤드셋과 기기만으로 박진감 넘치는 롤플레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2 LG유플러스는 다수의 카메라 설치로 다양한 시점에서 야구 중계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서울랜드에 자리잡은 KT 5G 테마파크



서울랜드 안에 있는 KT 키오스크

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다.

키오스크에는 △랜드뷰 △어트랙션뷰 △VR투어 기능이 있다. 랜드뷰를 누르면 카메라가 설치된 9개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장소의 실시간 상황을 앞뒤양면으로 다 볼 수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얼마나 붐비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가는 경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트랙션 뷰를 누르면 10개의 놀이기구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놀이기구를 탔을 때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코스와 시점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직접 타보지 않아도 놀이기구의 난이도와 체험 시간 등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10개의 놀이기구는 샷드롭, 스카이엑스, 은하열차 888, 블랙홀2000, 캐니멀서커스, 라바트위스터, 카트라이더범퍼, 급류타기, 킹바이킹, 도깨비바람이다.

VR투어 기능은 최적화된 이동 코스를 알려준다. 서울랜드 스폿 15곳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곳으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과 거리, 분위기, 상점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구현한 콘텐츠 세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또 콘텐츠 제작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놀라운 콘텐츠가 계속 등장할 전망이다.

시점은 투수, 타자, 포수, 심판이 보이고, 투수가 어느 코너로 공을 던지는지와 타격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포수 쪽 관중석에서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이 추가됐다. 이 시점에서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모두 보이고 관중석 분위기가까지 알 수 있다. 관중석에 앉아야만 볼 수 있는 시점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놀이동산을 스마트하게

KT가 서울랜드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했다. 서울랜드 곳곳에 설치된 KT 키오스크는 놀이동산을 더 재밌